

미선효순기록관 건립 취지와 경과



<미선효순기록관 이미지>, 조아진 작가 그림

기록관 건립 취지

2002년 여중생 촛불은 우리나라 촛불의 효시이자 한국 자주 평화운동의 대중적 지평을 연 역사적인 투쟁입니다.

우리 국민들의 정성어린 시민추모비와 한국 자주평화운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평화공원에 이어 건립할 기록관에는 촛불 투쟁에 관한 사진, 영상, 문서 등 자료들을 한데 모아 보존할 것입니다.

미선효순기록관은 촛불 투쟁의 위대한 역사를 영구히 보존하고 교훈을 새길 뿐 아니라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, 통일을 향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내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.

청년,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의 미래를 꿈꾸며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이 될 것입니다.

기록관 건립 경과

2020년 효순미선평화공원을 건립한 후 추모 20주기가 되는 2022년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은 기록관을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.

2023년 평화공원에 맞닿은 211평 정도 규모의 산지를 매입했습니다. (매입 비용은 고 김판태 군산평통사 대표 유족 기부) 기록관은 2026년 24주기 추모제에서 착공하여 2027년 25주기 추모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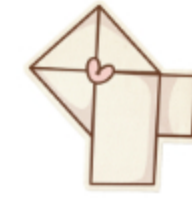
기록관은 전시실과 자료실, 교육실(청소년들의 평화교육 공간)을 기본 구성으로 견고하면서도 생태적인 건물로 세우고자 합니다.

다시 한번 국민들의 뜻과 정성으로!

평화공원처럼 오로지 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자주적인 방식으로 세웁니다. 회원들에게 설계와 시공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건축비를 최소화합니다.

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0개월 동안 월 1만원의 건립기금을 내는 회원 1800명을 모집하여 5억 원의 공사비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효순미선평화공원과 함께 한국 자주평화운동의 또 하나의 역사적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관 건립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요!



미선효순기록관 건립을 응원해주세요!

미선효순기록관 건립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!